

간호대학 신입생의 학습동기유발 프로그램의 효과 분석: 학습동기, 핵심역량, 시간관리, 진로태도성숙을 중심으로

박주영, 임효남, 김두리*
건양대학교 간호대학

The Effects of Learning Motivation Program for Freshmen of Nursing College: Focusing on Learning Motivation, Core Competence, Time Management, Career Attitude Maturity

Ju-Young Park, Hyo-Nam Lim, Doo Ree Kim*
College of Nursing, Konyang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 입학예정인 학생의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위한 다양한 교육전략 및 정책수립에 활용할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학습동기유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학습동기유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현황조사 및 문헌고찰을 통해 프로그램의 내용에 학습역량, 자기주도적 역량, 사회적 역량이 증진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이에 대한 내용을 전문가들에게 내용타당도를 수행하였다. 개발된 학습동기유발 프로그램은 간호대학 입학예정학생 121명에게 3주간 진행되었다. 그 결과 학습동기유발 프로그램 수행 전 보다 후에 학습동기, 핵심역량, 시간관리, 진로태도성숙이 증가하였으며, 프로그램 종료 4주 후에도 학습동기($F=3.45, p=.033$), 핵심역량($F=7.35, p=.001$), 시간관리($F=9.80, p<.001$), 진로태도성숙($F=19.83, p<.001$)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이는 학습동기유발 프로그램이 전공수업과 달리 다양한 학습전략을 포함하였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학습동기를 증진시킬 수 있는 자기주도적 학습방법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주제어 : 학습동기, 핵심역량, 시간관리, 진로태도성숙, 융합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 learning motivation program and to test its effect to provide basic data to be used for freshmen who are going to enter nursing college and various educational strategies and policies for successful university life. In order to develop the program, the contents of the program were structured so as to improve the learning ability, self-directed ability, and social competence through the current research and literature review. As a result, motivation ($F=3.45, p=.033$), core competence ($F=7.35, p=.001$), time management ($F=9.80, p<.001$) and career attitude maturity ($F=19.83, p<.001$) were significantly increased before the program. This suggests that the composition of the learning motivation program includes various learning strategies unlike nursing and majors.

Key Words : Learning motivation, core competence, time management, attitude maturity, Convergence

*Corresponding Author : Doo Ree Kim(kdr2015@konyang.ac.kr)

Received May 28, 2018

Accepted August 20, 2018

Revised July 12, 2018

Published August 28, 2018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대학교육연구소(2016)의 대학 입학정원 변동 현황 발표자료에 따르면[1], 2012년 556,253명에서 2016년 503,481명으로 총 52,772명이 감소했으며 이는 전체 대학의 83.3%(275교)가 입학정원을 감축한 결과이다. 이에 따라 최근 교육부(2016)에서 발표된 2016 교육통계(Brief Statistics on Korean Education) 지표[2]에서도 2010년 3,644,158명에서 3,516,607명으로 재적 학생수가 줄었다. 하지만 재적 학생수 대비 휴학생은 2010년 30.4%에서 2016년 28.4%로 다소 감소하면서 중도이탈 현상이 완화되었다. 이는 고등학교 졸업자 중에서 대학 진학률이 대학 등록자 기준으로 2000년 62%에서 2010년에 75.4%까지[2] 정점에 달하면서 대중화를 훌쩍 넘어 이미 포화화 단계로 접어들어 오래이지만, 학령인구 절벽을 대비해 대학 스스로 대학의 질을 높여려는 노력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겠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하여 많은 대학들에서 무엇보다 재학생 뿐 만 아니라 신입생들의 대학생활 적응에 초점을 두어 오리엔테이션을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다[3]. 특히 대학 신입생들은 치열한 입시경쟁 속에서 지내다가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대학생활을 바로 시작하면서 경험하는 갈등과 어려움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4]. 즉, 성공적인 학습, 핵심역량 달성, 시간관리 향상과 바람직한 전문직관 정립을 통한 진로태도성숙 등에서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는 대학생활은 대부분의 신입생들에게 성장의 기회이지만 동시에 부담이 되는 시기이다.

우리나라 대학교 신입생의 특징은 획일적인 입시공부의 강요와 의지와 무관한 진로를 선택 하게 되는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인해 교사와 부모의 기대나 압력으로 학습동기를 유지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대학생 스스로 학습동기를 확립할 수 있는 기회가 없고 그 전략 또한 구체적이지 못하다[5]. 따라서 대학은 신입생들의 새로운 전공에 대한 학습동기 전략을 경험하게 하고 지속 할 수 있는 훈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국내 일 대학에서는 신입생을 대상으로 자기주도적 학습과 진로 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학습동기를 유발하여 대학생활에 조기 적응을 돕기 위한 독립된 학기를 운영해 오고 있다. 대학단위와 학과단위의 동기유발 학기(Motivation Semester) 프로그램으로써[6] 2011년에 시범사업을 거쳐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여 매년 세부 프로그램의 재구성 및 재조정을

통해 전공학과별로 특성화를 이루고 있다. 이는 대학 신입생들에게 고등학교와 대학을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시간을 부여하면서 대학생활에 잘 적응하고 도움을 주기 위해 설계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7].

하지만 선행연구에서는 동기유발학기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학생들의 전반적인 학업동기, 자아존중감 및 스트레스 수준에 대한 보고[6]는 되었으나 프로그램을 통한 간호학을 선택한 대학 신입생들의 사회·심리적 측면에서의 구체적인 효과에 대한 보고는 전문직관이다. 특히 다른 전공학생들에 비해 취업이 다소 유리한 특성이 있어 졸업과 동시에 현업에서 일할 기회가 많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생들의 경우 뚜렷한 전문직관이나 진로를 위한 준비가 부족한 상태로 학교생활을 하게 되면서, 이념과 목표가 없는 간호활동을 하게 되어 바람직한 간호상의 부채를 초래하는 근본원인이 되므로[8] 바람직한 전문직관을 가지고 그에 따라 진로를 스스로 준비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와 같은 간호전문직관 형성과 더불어 간호학생이 졸업 후 전문직 간호사로서의 역할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진로를 준비하는 태도 또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9]. 특히 최근 간호계에서 대두되고 있는 심각한 문제로서, 신규간호사들이 임상현장에 투입되어 현실충격을 극복하지 못하고 전문직 사회화를 이루지 못한 채 조기 사직을 하는 비율이 급증하는 것을 고려할 때 대학 신입생 때부터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학습동기와 핵심역량 및 시간관리 향상과 바람직한 진로준비를 위한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돕는 전략이 시급하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해 간호학 전공 대학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총 3주간의 학습동기유발 프로그램을 위해 학과단위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학습동기, 핵심역량, 시간관리,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간호학 전공 학생들의 전문직관 정립과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위한 다양한 교육 전략 및 정책 수립에 활용할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한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 입학예정인 신입생의 전문직관 정립과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위한 다양한 교육전략 및 정책 수립에 활용할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학습동기유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는 것으로써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간호대학 입학예정인 신입생을 위한 학습동기유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둘째, 간호대학 입학예정인 신입생을 위한 학습동기유발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한다.

1.3 연구가설

본 연구에서 개발된 학습동기유발 프로그램의 효과 검정을 위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 가설 1. 학습동기유발 프로그램에 참여한 간호대학 신입생은 프로그램 참여 전 보다 학습동기 수준이 증가할 것이다.
- 가설 2. 학습동기유발 프로그램에 참여한 간호대학 신입생은 프로그램 참여 전 보다 핵심역량 수준이 증가할 것이다.
- 가설 3. 학습동기유발 프로그램에 참여한 간호대학 신입생은 프로그램 참여 전 보다 시간관리 수준이 증가할 것이다.
- 가설 4. 학습동기유발 프로그램에 참여한 간호대학 신입생은 프로그램 참여 전 보다 진로태도성숙 수준이 증가할 것이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간호대학 입학예정 신입생의 성공적인 대학생활 적응과 바람직한 전문직관 정립을 위한 목적으로 학습동기유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두 부분으로 나누어 수행되었다. Fig.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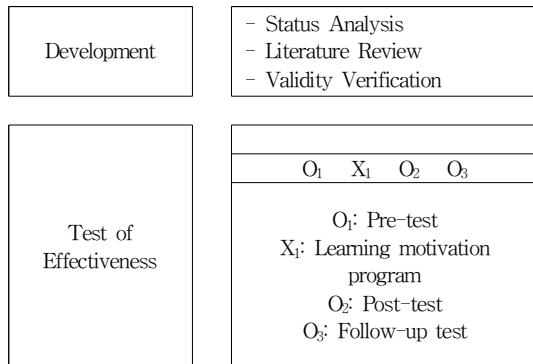


Fig. 1. Research design

2.1 학습동기유발 프로그램 개발

본 연구의 학습동기유발 프로그램의 개발과정은 먼저 학습동기유발에 대한 현황분석과 문헌고찰을 통해 학과 단위에서 구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내용을 선정하였고,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은 전문가 협의를 통해 내용 타당도(Content Index Validity, CVI)를 확보하였다.

2.1.1 학습동기유발 프로그램 내용

2.1.1.1 현황분석

학습동기유발 프로그램은 K 대학교에서 2011년 시범 사업을 거쳐 2012년부터 학과 전체에 확대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대학 본부에서 기획하고 운영하는 학교 프로그램과 학과 주도의 학과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며, 신입생들이 대학에 빠른 시간 내에 적응하고, 전공에 대해 미리 접해봄으로써 학습에 대한 동기가 유발되도록 개강 전 3주 동안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다. 본 연구대상자가 소속되어 있는 학과의 기존 프로그램은 전공몰입, 도서관 활용법, 효과적인 대학 공부법, 멘토 특강, 선배가 돕는 대학생활 정복, 공동체 장기자랑 등으로 구성되었다.

2.1.1.2 문헌고찰

학습동기유발 프로그램 내용선정을 위해 대학생의 학습동기와 관련된 국내문헌을 통해 2007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시행된 연구를 조사하였다. 문헌검색에 활용된 데이터베이스는 한국연구정보서비스(RISS), 구글 학술검색(Google scholar)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검색을 위해 사용된 핵심어는 학습동기(Learning motivation), 신입생(Freshmen)이었다. 1차적으로 검색된 국내문헌은 38편이었으며, 이 중 중복되는 논문과 대상이 대학교 신입생이 아닌 경우, 본 연구주제와 관련이 없는 문헌 16편을 제외하고 총 22편을 선정하였다.

문헌고찰 결과 Table 1과 같이, 실험연구 8편, 서술연구 14편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학습동기를 중재로 한 실험연구 8편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10-17]. 분석결과, 연구설계는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설계와 단일군 전·후 설계였으며, 프로그램 유형은 전공과목의 기초학력을 강화하는 프로그램[12,14-16]과 대학의 적응을 돕고 학습동기를 유발하는 프로그램[10,11,13,17] 등이 있었다. 중재기간은 1일 3시간의 1회성 교육부터 4주, 7주, 15주 등으로 다양했으며, 프로그램 운영방식은 온라인 프로그램도 있

Table 1. Literature review on learning motivation in college students

No.	Author (Year)	Intervention Programme	Research design	Subjects	Intervention Methods	Programme details	Result variables	Results
1	Ko & Yoo (2014)	Self-Leadership lecture	Pre-post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freshmen(n=67) Ex(36)Ci(31)	twice a week/ 15weeks	OT, Understanding Self-Leadership Self-understanding/self-observation/self-talk/Positive thinking/time management through clue management	Self-efficacy Learning motivation	Self-leadership lectures positively affect students' academic self-efficacy and learning motivation
2	Kang (2013)	Motivation program	Nonequivalent control group pre-post	Department of physical education Ex(37)Ci(29)	4weeks	(School)Entrance ceremony/ Future Vision lecture, Personality test/ Leadership camp/ Graduation ceremony (Department) Major/PBL/workplace visit	Learning motivation Self-efficacy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in self-efficacy of experimental group in comparison between pre-test and post-test
3	Lee et al (2011)	Mathematics foundation improvement program	Nonequivalent control group pre-post	engineering freshmen (n=509) Ex(323)Ci(186)	One semester (10times)	Derivatives and integrals, extreme and continuity of functions, derivatives and derivatives, properties of derivatives, differentiation, application of derivatives	Academic achievement Learning motivation	The basic academic achievement program of mathematics has a great influence on academic achievement and motivation for learning.
4	Lee & Lee (2012)	College adaptation program	One group pre-post	five department freshmen (n=63)	One semester	Self-management and career exploration OT, University life, Self expression, life road map personality, time management,	College life adaptation/Career decision motivation	After the program, fresh students' adaptation to college life improved career decision level after program implementation.
5	Kim (2016)	Promoting learning teaching	One group pre-post	freshmen (n=3)	Once a week/ 7weeks	Study, Teaching-learning, Explore learning support, Learning method clinic	Self initiative Self-efficacy	Self-efficacy is lowered The grade is getting higher
6	Han (2013a)	Major commitment	One group pre-post	Department of nursing(n=128)	4weeks	Major commitment	Learning motivation Self-efficacy	The motivation for learning after the program is significantly lowered. Self-efficacy is statistically significantly higher.
7	Kim (2016)	Strategy based teaching activity	One group pre-post	Foreign student major(n=64)	Once a week/ 15weeks	Set English learning goals, writing	Learning ability	Strategy-based instructional activities have positive effects on learner's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8	Park et al (2009)	Career guidance program	Nonequivalent control group pre-post	Department of nursing freshmen Ex(50)Ci(50)	One day (3hours)	OT, Meeting with seniors, Understanding yourself, Career planning	Learning motivation Major Satisfaction Self-efficacy	The experimental group showed significantly higher learning motivation,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 self-efficacy than the control

었으나 오프라인 프로그램이 대부분이었다. 연구대상은 유아교육과, 체육계열학과, 공과대학, 수학과, 간호학과 및 외국어전공 신입생으로 다양한 학과에서 진행되었다. 프로그램 내용은 자기이해, 자기관찰, 긍정적 사고하기, 성격검사, 전공몰입, 전문인 특강, 시간 관리법 등이었으며, 결과변수로는 프로그램 만족도, 학업관련 자기효능감, 학습동기, 학업성취도, 대학생활 적응도, 전공만족도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학생들은 기초학력이 증진되었고, 학습동기, 전공만족, 자기효능감, 자신감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진행된 학습동기유발 현황조사와 문헌고찰 결과를 근거로 하여 학습동기유발 프로그램을 학습역량 증진, 자기주도적 역량 증진, 사회적 역량 증진을 바탕으로 구성하였다. Table 2

Table 2. Details on learning motivation program

	Competence	Schooling program	Major Program
1	Learning ability	Learning motive type test	-Major commitment 1 /Campus tour
	Self-directed ability	Leadership camp Personality test	
	Social competence	Entrance into a school	-Promote friendship
2	Learning ability		-Major commitment 2~8 -Senior lecture
	Self-directed ability	Special lecture on future vision Partnership training	-Mentor lecture
	Social competence	Violence prevention education	-Honor code practice plan -Community program -Academic group in advance
3	Learning ability	Real english	-Major commitment 9~13 -Method of happy studying
	Self-directed ability	Interpret personality test results Performance presentation	
	Social competence	Completion ceremony	-Future workplace visit

2.1.2 타당도 검증

본 연구에서 개발된 학습동기유발 프로그램의 구체적 내용은 학습동기유발 프로그램 운영 경험이 있는 간호학과 교수 4인, 대학본부의 학습동기유발 프로그램 담당교수 2인의 자문을 통해 총 2차에 걸쳐 내용타당성을 검증 받았다. 내용타당도 결과는 CVI(Content Index Validity)=.90이었다. 전문가 내용타당도에서는 간호대학 학생들이 추후, 간호사로서의 다양한 분야에 진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특강에 대한 내용의 추가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있어 프로그램에 반영하였으며, 미래직장 방문에서도 하나의 부서가 아닌 다양한 부서에 대한 견학이 가능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진행하였다.

2.2 학습동기유발 프로그램 효과검정

2.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총 3주간의 학습동기유발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단일군 반복측정 유사실험연구설계(One group repeated measure design)이다.

2.2.2 연구대상자

본 연구의 대상자는 D시 소재 일 간호대학에 입학예정인 신입생을 대상으로 임의표집을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충분히 이해하고, 연구에 자발적 참여에 동의한 신입생 13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연구기간 중 휴학 및 자퇴, 불충분한 응답 등으로 9명이 탈락하여 최종 분석 대상자는 121명이었다. 선행연구인 대학생 동기조절 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 연구[5]를 참고하여 G-power 3.1.9.2 program을 이용하여 유의수준 0.05, 중간 효과크기 .15, 검정력 0.95로 3회 반복측정 분산분석에 필요한 인원을 산출한 결과, 표본크기는 최소 97명이 필요하였으나, 입학예정인 학생임을 고려하여 다수의 중도탈락을 예상 하였을 때 충분한 대상자 크기로 판단된다.

2.2.3 연구과정

본 연구에서는 대학 본부 차원에서 기획하고 운영하는 학교 프로그램과 본 연구에서 개발된 학과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학습동기유발 프로그램이 1일 6~8시간씩 주 5회로 3주 동안 진행되었다. Table 2, 이를 이수한 학생에게는 전공 1학점과 교양 1학점, 총 2학점이 부여되었다. 매 주차 프로그램은 학습역량 증진, 자기주도적 역량 증진, 사회적 역량 증진을 포함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

며, 1주차의 학과 프로그램은 학과의 핵심역량에 대해 알아보는 전공몰입 1, 캠퍼스 투어, 학과 학생들과 협동할 수 있는 공동체 프로그램(체인지, 體仁知) 준비시간으로 진행되었고, 2주차에는 학교 프로그램과 함께 전공에 입문해보는 전공몰입 2~8, 학생들 스스로 정직하고 명예로운 대학생활을 위한 명예코드 실천방안을 도출해보는 시간, 간호학과 학생들의 공동체 의식과 단합을 높여줄 공동체 프로그램(체인지), 미리 만나는 학술동아리, 2~3학년 학과 선배에게 듣는 학습법, 간호학 전문가 3인(장기이식 코디네이터, 보건교사, 연구간호사)에게 듣는 멘토 특강으로 이루어졌다. 마지막으로 3주차에는 학과 교수자를 통해 전공을 미리 경험해볼 수 있는 전공몰입 9~13과 문제해결중심 학습법(Problem based learning, PBL)을 통한 행복한 공부법 맛보기, 대학병원을 견학해보는 미래 직장 방문 프로그램으로 진행하였다. 학습동기유발 프로그램의 효과검정은 프로그램 시작 전 입교식, 프로그램의 마지막인 수료식 직후, 그리고 프로그램 종료 후 4주에 측정되었다.

2.2.4 연구도구

2.2.4.1 학습동기

학습동기는 Pintrich 등[18]이 개발한 MSLQ(Motivated Strategies for Learning Questionnaire)를 기반으로 Kim[5]이 번안과 역번안 과정을 거친 도구를 이용하였다. 총 31문항으로 구성되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아주 그렇다' 7점으로 7점 리커트(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점수의 평균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학습동기가 높음을 의미한다. Kim[5]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96 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93 이었다.

2.2.4.2 핵심역량

대학생의 핵심역량 측정을 위하여 Kang 외[19]가 기존에 국내 고등학생의 미래생애역량을 측정하고자 개발된 도구를 Kim[20]이 대학생용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으로 수정·보완한 도구를 이용하였다. 총 31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 리커트(Likert)척도로 구성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핵심역량이 높음을 의미한다. Kim[20]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75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89 이었다.

2.2.4.3 시간관리

본 연구에서 대학생들의 시간관리 측정을 위해 Youn[21]이 Seo[22], Kim[23], Chae[24]의 시간관리 척도를 참고해 수정 및 보완한 도구를 이용하였다. 총 16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5점 리커트(Likert)척도로 구성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시간관리를 잘 하는 것을 의미한다. Youn[21]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82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81 이었다.

2.2.4.4 진로태도성숙

본 연구에선 진로태도성숙을 측정하기 위해 Lee와 Han[25]이 개발하고 타당도 검증을 수행한 진로태도성숙도 검사(Career Attitude Maturity Inventory: CAMI)를 이용하였다. 진로결정 이전에 성숙한 태도를 갖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이 척도는 총 47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 리커트(Likert)척도로 구성되었다. Lee와 Han[25]의 연구에서 도구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87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77 이었다.

2.2.5 자료수집 및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K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 받은 후 시행하였다(IRB No. 2016-077). 모집방법에서 연구참여를 알리는 첫 공지를 연구자 즉 교수자가 하게 될 경우 취약한 대상자인 학생이 연구참여의 자율성을 상실할 수 있으므로, 훈련된 연구보조원 석사생 1명이 연구대상자에게 연구를 설명하고, 이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학생을 대상으로 학습동기유발 프로그램 시작 일에 사전검사를 진행하였다. 연구보조원은 연구대상자에게 연구에 대한 설명 시 본 연구의 참여는 성과와 전혀 무관하며, 스스로 자율적인 동의하에 진행됨을 설명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 중 언제든지 자발적으로 참여를 중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음을 설명하였다. 본 연구는 학습동기유발 프로그램 종료 직후와 프로그램 종료 4주 후에도 같은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2.2.6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Statistics 23.0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학습동기, 핵심역량, 시간관리, 진로태도성숙은 실수와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학습동기유발 프로그램을 제공한 후 대상자의 학습동기, 핵심역량, 시간관리, 진로태도성숙의 변화는 Repeated Measure ANOVA로 실시하였다. 반복측정 분석의 가정으로 요구되는 구형성은 Mauchly로 확인하였다. 진로태도성숙은 구형성 가정을 충족하지 못하여 다변량으로 검정하였다.

3. 연구 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 중 여학생 103명(85.1%), 남학생 18(14.9%)이었다. 입학 전 고등학교에서 이과는 62명(51.2%), 문과는 59명(48.8%)이었고, 자신의 성격이 적극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69명(57.0%), 소극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52명(43.0%)이었다. 거주형태로 기숙사가 83명(68.6%)로 가장 많았고, 전공선택 동기로 적성에 맞을 것 같아서 결정된 경우가 88명(72.7%)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부모님의 권유가 18명(14.9%), 자신의 성적에 맞추어서가 15명(12.4%)이었다. Table 3

Table 3.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121

Variable	Category	n(%)
Age (18.51±0.75yrs)	<22	174(83.3)
	22≤	35(16.7)
Gender	Female	103(85.1)
	Male	18(14.9)
High school	Art	59(48.8)
	Science	62(51.2)
Personal characteristic	Active	69(57.0)
	Inactive	52(43.0)
Types of accommodation	Dormitory	83(68.6)
	Off-campus	5(4.1)
	House	33(27.3)
Health care worker in family members	Yes	31(25.8)
	No	89(74.2)
Motivation of choosing study of nursing	In accordance with grade	15(12.4)
	In accordance with aptitude	88(72.7)
	In accordance with suggestion of parents	18(14.9)
Preferable type of study	Lecture	92(76.0)
	Cooperation study	29(24.0)
Way of resolution when having questions related to study	By oneself	39(32.2)
	By asking friends	31(25.6)
	By asking teachers	51(42.2)

3.2 학습동기유발 프로그램 효과검정

3.2.1 제 1가설: 학습동기유발 프로그램에 참여한 간호대학 신입생은 경험 전 보다 학습동기 수준이 증가할 것이다.

학습동기유발 프로그램에 참여한 간호대학 신입생의 학습동기 수준에 대한 차이를 검증한 결과, 사전검사 4.88±0.80점, 프로그램 종료직후 5.07±0.71점, 4주 후 5.12±0.65점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학습동기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상승하여(F=3.45, p=.033), 가설 1은 지지되었다. Table 4

3.2.2 제 2가설: 학습동기유발 프로그램에 참여한 간호대학 신입생은 경험 전 보다 핵심역량 수준이 증가할 것이다.

학습동기유발 프로그램에 참여한 간호대학 신입생의 핵심역량 수준에 대한 차이를 검증한 결과, 사전검사 3.94±0.47점, 프로그램 종료직후 4.13±0.44점, 4주 후 4.13±0.41점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핵심역량 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상승하여(F=7.35, p=.001), 가설 2는 지지되었다. Table 4

3.2.3 제 3가설: 학습동기유발 프로그램에 참여한 간호대학 신입생은 경험 전 보다 시간관리 수준이 증가할 것이다.

학습동기유발 프로그램에 참여한 간호대학 신입생의 시간관리 수준에 대한 차이를 검증한 결과, 사전검사 3.15±0.43점, 프로그램 종료직후 3.53±0.53점, 4주 후 3.33±0.51점으로 프로그램 직후까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시간관리 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상승하였으나 4주 후에는 종료 직후보다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F=9.80, p<.001). Table 4

3.2.4 제 4가설: 학습동기유발 프로그램에 참여한 간호대학 신입생은 경험 전 보다 진로태도성숙 수준이 증가할 것이다.

학습동기유발 프로그램에 참여한 간호대학 신입생의 진로태도성숙 수준에 대한 차이를 검증한 결과, 사전검사 3.11±0.27점, 프로그램 종료직후 3.29±0.34점, 4주 후 3.26±0.45점으로 프로그램 직후까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진로태도 성숙 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상승하였으며, 4주 후에는 유의하게 증가하여(F=19.83, p<.001), 가설 4는 지지되었다. Table 4

Table 4. Comparison of before the learning motivation program, right after and 4 weeks after the execution of the motivation inducing program

N=121

Variable	Before	Right after	After 4 weeks	source	F	p
	M±SD					
Learning motivation	4.88±0.80	5.07±0.71	5.12±0.65	Time	3.45	.033
Core competence	3.94±0.47	4.13±0.44	4.13±0.41	Time	7.35	.001
Time management	3.15±0.43	3.53±0.53	3.33±0.51	Time	9.80	<.001
Career Attitude Maturity	3.11±0.27	3.29±0.34	3.26±0.45	Time	19.83	<.001

4. 논 의

본 연구의 논의에서는 학습동기유발 프로그램이 간호대학 신입생의 학습동기, 핵심역량, 시간관리, 진로태도성숙 수준에 미치는 효과를 논의하고자 하며, 이를 바탕으로 추후 간호대학생의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위한 교육 전략 및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결과 간호대학 신입생의 학습동기는 학습동기유발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 7점 만점에서 4.88±0.80점이었으며, 프로그램 종료 후 5.07±0.71점, 프로그램 종료 4주 후 5.12±0.65점으로 학습동기 수준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F=3.45, p=.033). 이는 Han[26]의 연구에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기주도적 학습전략을 통한 동기유발 프로그램을 수행한 결과 프로그램 수행 후 학습동기와 자기효증감이 증가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또한 Han[26]의 연구에서의 자기주도적 학습전략의 구성은 각 주차별 주제에 따른 학생의 조모임을 통해 주제 활동 및 과제를 수행하며 서로 피드백하는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수업 후 학생들의 면담내용을 살펴보면 '새로운 친구들(주로 다른 과 학생)을 사귀게 되어 좋았다', '내 생각을 친구들의 것과 비교할 수 있었다',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과 새로운 정보를 알 수 있었다' 등의 내용이 있었다. 이는 본 연구에서 학습동기유발 프로그램 중 조별활동을 수행했던 리더십캠프나 행복한 공부법 맛보기에서 학생들이 조별 활동 후 '단체 활동에서 친구들과 의견을 나누고 조합하는 과정을 통해 스스로 몰랐던 내용들을 더 자세히 알 수 있었다' 라고

했던 맥락과 같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학습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학습하고자 하는 동기가 증진되고 목적지향적인 활동을 수행하게 됨을 알 수 있다. 같은 도구를 사용하지 않아 정확한 비교는 어렵지만 같은 보건계열인 병원관리학과, 방사선학과, 안경공학과 등의 신입생을 대상으로 학습동기유발 프로그램 효과를 평가한 연구에서도 학습동기유발 프로그램 수행 전 학습 동기는 6점 만점에 4.33 ± 0.54 점이었으나 프로그램 후 4.52 ± 0.57 점으로 유의하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6].

본 연구에서 학습동기유발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학습동기를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까지 많은 사전연구에서는 학습동기 증가는 추후 학생들의 학업성취를 향상시키는데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최근 Jo와 Kim의 연구[27]에 따르면 학습동기가 학업성취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학습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전략이란 학습자가 새로운 학습을 익히고 기억하기 위해 특별한 사고, 행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인지전략, 초인지전략, 자원관리 전략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추후 간호대학생의 학습동기유발 프로그램을 통한 학습동기 증진에 따른 학업성취 향상을 위해서는 간호대학생에게 적합한 효과적인 학습전략을 고려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본 연구결과 간호대학 신입생의 핵심역량은 학습동기유발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 5점 만점에 3.94 ± 0.47 점이었으며, 프로그램 종료 후 4.13 ± 0.44 점, 프로그램 종료 4주 후 4.13 ± 0.41 점으로 핵심역량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F=7.35, p=.001$). 본 연구에서 측정된 핵심역량은 인지역량, 감성역량, 사회문화역량으로 분류된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학습동기유발 프로그램은 인지적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해 전공몰입, 행복한 공부법 맛보기 등이 포함되었으며, 감성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해 명예코드 실천방안, 예비체인지, 선배에게 듣는 학습법 등을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회문화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해 캠퍼스 투어, 미래직장방문, 체인지(공동체 프로그램)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학습동기유발 프로그램 후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인지역량에서는 ‘행복한 공부법 맛보기에서 임상사례를 조별로 분석하여 실제 간호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으면서 도서관을 이용하여 책을 찾고 인터넷 자료 등을 찾아 조합할 수 있었고, 조원들의 다른 의견 등을 종합하면서 결정을 내리는 과정이 좋았다’라고 하였다. 또한 감성역량에서는

‘입교식 때 진행했던 자신의 성격을 알아보는 MBTI검사 및 결과분석 프로그램을 통해 내가 앞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과 증진시켜야 할 부분을 정확히 알 수 있었다’라고 하였고, 사회문화역량에서는 ‘처음에는 친구들과 조별활동을 하고 무언가를 준비하는 것이 어색하고 낯설었지만 수업 시작 전 친구들과 친해질 수 있어 좋았고, 이 프로그램을 통해 이제 진짜 대학생이 되었구나 느꼈다’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연구대상자들은 학습동기유발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하였고, 이를 통해 간호사로서 추후 갖추어야 할 핵심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본 연구결과 간호대학 신입생의 시간 관리는 학습동기유발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 5점 만점에 3.15 ± 0.43 점이었으며, 프로그램 종료 후 3.53 ± 0.53 점, 프로그램 종료 4주 후 3.33 ± 0.51 점으로 시간관리 수준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F=9.80, p<.001$). 이는 Kim 외[28]의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시간관리 행동을 조사한 결과 3.03 ± 1.11 점으로 나타난 것과 비슷한 결과이며, 문항 중 ‘앞으로의 일에 대비해 장기적(1년 이상)인 시간 계획을 세우는 편이다’가 2.33 ± 1.04 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에서도 동기유발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 학생들의 시간관리 항목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인 항목과 같았다. 이는 계획영역의 점수로 Seo와 Doo의 연구[29]에서 학생의 시간관리 중 계획점수가 낮게 나타난 것과 같은 결과로 대학생들이 계획보다는 행동을 수행하는데 시간을 소모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간호대학생은 수업과 임상실습을 병행하는 교육과정을 통해 다양한 지식습득 뿐 아니라 환자를 위한 돌봄 간호에 대한 기술을 습득하게 된다. 또한 간호대학생은 추후 병원에서 근무시간 내에 체계적으로 환자를 간호해야 하는 책임이 있으므로 대학교 때부터 시간관리 능력을 갖추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30]. 본 연구에서 시간관리 능력이 향상된 이유는 학습동기유발 프로그램 중 3인 3색 멘토특강을 통해 현재 임상현장의 다양한 영역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의 업무관련 교육과 간호사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필요한 역량 교육 및 노하우 전달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되며, 미래직장방문을 통해 실제 임상에서의 간호사의 역할을 관찰함으로써 연구대상자들에게 시간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가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본 연구결과 간호대학 신입생의 진로태도성숙은

학습동기유발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 5점 만점에 3.11 ± 0.27 점이었으며, 프로그램 종료 후 3.29 ± 0.34 점, 프로그램 종료 4주 후 3.26 ± 0.45 점으로 진로태도성숙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F=19.83, p<.001$). 이는 Han의 연구[31]에서 간호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진로태도성숙을 조사한 결과 2.03 ± 0.21 보다는 높은 결과이다. 이는 선행 연구에 따르면 진로태도성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전공만족도가 있는데 본 연구에서 학생들의 일반적 특성 중 간호학을 선택하게 된 동기가 '본인이 스스로 선택해서'가 88명(72.7%)이었으나 Han의 연구[31]에서는 '취업하기가 쉬워서'가 105명(43.9%)이었던 것으로 보아 스스로 간호학을 선택한 학생들이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진로태도성숙의 하부영역을 분석한 결과 각각 확신성, 독립성, 결정성, 준비성, 목적성 중 본 연구대상자들은 동기유발 프로그램 전 확신성이 3.35 ± 0.32 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목적성은 2.95 ± 0.40 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하지만 학습동기유발 프로그램 참여 후 목적성은 3.45 ± 0.41 점으로 유의하게 증가한 결과를 보였다. 이는 본 연구대상자들이 간호학과 선택에 대해서는 확신을 갖고 있으나, 미래의 간호사로서의 자신의 역할이나 방향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진행된 학습동기유발 프로그램에서 선배에게 듣는 학습법은 앞으로 4년 동안 간호대학생으로서의 학습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었을 것이며, 간호학과 교수들이 각 전공에 대해 주제별로 진행한 전공몰입 프로그램은 간호대학생이 미래의 간호사로서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고, 방향을 설정하는데 도움이 되어 진로태도성숙 중 목적성을 유의하게 증진시켰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진행한 학습동기유발 프로그램은 간호대학생의 학습동기, 핵심역량, 시간관리, 진로태도성숙을 증진시킬 수 있었다. 이는 학습동기유발 프로그램 구성이 현재 간호대학에서 진행되는 전공수업과는 달리 다양한 학습전략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간호대학생은 이론과 임상실습을 병행하는 과정에서 심리적 소진을 경험하며, 이는 학업을 진행하는 간호대학생의 학습동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간호대학에서는 간호대학생의 꾸준한 학습동기 증진을 위해서 이론 중심의 교육이 아닌 자기주도적 학습방법이 포함된 효과적인 교육방법을 적용한 학습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 입학예정인 신입생의 전문직관 정립과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위한 다양한 교육전략 및 정책수립에 활용할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학습동기유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도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습동기유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두 부분으로 나누어 연구가 진행되었다. 학습동기유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현황조사 및 문헌고찰을 통해 프로그램의 내용에 학습역량, 자기주도적 역량, 사회적 역량이 증진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이에 대한 내용을 전문가들에게 내용타당도를 수행하였다. 최종 학습동기유발 프로그램은 1일 6~8시간씩 주 5회로 3주간 진행되었으며, 이를 이수한 학생에게는 전공 1학점, 교양 1학점 총 2학점을 부여하였다. 학습동기유발 프로그램을 통해 예비간호대학학생들이 미래의 자신의 진로 및 대학생활을 잘 설계할 수 있도록 문제해결중심학습법을 통한 행복한 공부법 맛보기, 미래직장방문하기, 멘토특강 등을 프로그램에 포함하였다.

개발된 학습동기유발 프로그램은 간호대학 입학 예정인 신입생 121명에게 3주간 진행되었다. 그 결과 학습동기유발 프로그램 수행 전 보다 수행 후에 학습동기, 핵심역량, 시간관리, 진로태도성숙이 증가하였으며, 프로그램 종료 4주 후에도 학습동기($F=3.45, p=.033$), 핵심역량($F=7.35, p=.001$), 시간관리($F=9.80, p<.001$), 진로태도성숙($F=19.83, p<.001$)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이는 학습동기유발 프로그램 구성이 간호학과 전공수업과 달리 다양한 학습전략을 포함하였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추후, 간호대학생의 학습동기를 증진시킬 수 있는 자기주도적 학습방법을 포함한 교육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추후 간호대학생의 학습동기를 증진시킬 수 있는 자기주도적 학습방법을 포함한 교육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학습동기유발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단일군 시계열 유사실험연구설계로 실험효과를 반복 측정하여 단일군 유사실험연구 설계의 제한점을 보완하고자 하였으나, 대조군이 없는 단일군으로 진행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대조군과 비교할 수 있는 연구 설계수행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REFERENCES

- [1] Korea Higher Education Research Institute. (2016). *KHEI Statistics*. [Online], 17(3). <http://khei-khei.tistory.com>
- [2] Ministry of Education. (2016). *Brief Statistics on Korean Education*. [Online], <http://kess.vedi.re.kr>
- [3] M. J. Keum & H. J. Nam. (2010). College Freshmen's Expectations about College Life and Their Mental Health Status. *J Hum Underst Couns*, 31(1), 105-127.
- [4] Y. K. Kwag. (2013). Effect of Self-Esteem, Ego-Resilience, Social Support on Nursing Students Adjustment to College.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4(5), 2178-2186.
DOI : 10.5762/KAIS.2013.14.5.2178
- [5] E. Y. Kim. (2006). *Development and effectiveness of motivation regulation training program for university students*. Doctoral dissertation. Seoul Women's University, Seoul.
- [6] W. S. Han, J. K. Kim & H. K. Lee. (2013). Effects of the "Motivation Semester" Program among University Freshmen : Focused on K-University.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3(7), 522-530.
DOI : 10.5392/JKCA.2013.13.07.522
- [7] I. S. Choi. (2014). A Longitudinal Study on Motivation Semester of K University : Focused on College of Busines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4(2), 247-256.
DOI : 10.14257/AJMAHS.2014.12.24
- [8] E. J. Yeun & Y. M. Kwon. (2007). A Correlation Study on Nursing Professional Values, Department Satisfaction, Sociality, Self-Esteem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13(3), 285-292.
- [9] Y. J. Ko & I. K. Kim. (2011). The Relationship between Professional Nursing Values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7(1), 62-71.
- [10] Y. M. Go & Y. E. Yoo. (2014). Effects of a Self-Leadership Lecture on the Academic Self-Efficacy and Learning Motivation of Freshmen Majoring in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 Review*, 18(5), 541-560.
- [11] K. H. Kang. (2013). Change of Learning Motivation and Self-Efficacy according to Participation in a Motivational Program.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4(1), 128-134.
DOI : 10.5762/KAIS.2013.14.1.128
- [12] J. R. Lee, S. J. Lee, H. H. Kwon & G. H. Lee. (2011). The Effect of Basic Mathematical Ability Improvement Program on Scholastic Achievement and Scholastic Motivation-A Case Study on Engineering Freshmen in D University. *Communications of Mathematical Education*, 25(1), 167-184.
- [13] M. A. Lee & S. D. Lee. (2013). The Effects of Freshmen's University Adaptation Program Organized into the Regular Curriculum and Improvement Methods. *The Journal of the Research and Information Service*, 13, 111-120.
- [14] S. D. Kim. (2016). A Study on Exploring the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Strategies of Teaching and Learning Program for Improving Learning Ability of Freshmen-Focused on the D-University Case-. *The Journal of Education Research*, 1(1), 1-16.
- [15] S. J. Han. (2013a). The Influence of Major Orientation on Learning Motivation and Self-Efficacy of Freshman in Nursing Students. Korean Society of Adult Nursing Conference, 2013(5), 119-119.
- [16] I. Y. Kym. (2016). Using SBI Model to Promote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of English Major Students. *The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14(1), 73-99.
- [17] J. S. Park, K. S. Back & B. N. Park. (2009). A Study on the Effects of Career Guidance Program on Learning Motivation, a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 Self-efficacy for Nursing College Freshman. *Journal of College Education*, 10(3), 173-184.
- [18] P. R. Pintrich, D. A. F. Smith, T. Garcia & W. J. McKeachie. (1993). Predictive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Motivated Strategies for Learning Questionnaire.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53, 801-813.
DOI : 10.1177/0013164493053003024
- [19] M. H. Kang, H. O. Heo, I. H. Jo, J. H. Shin & J. H. Seo. (2010). Developing an Educational Performance Indicator for New Millennium Learners. *Journal of Research on Technology in Education*, 43(2), 157-170.
DOI : 10.1080/15391523.2010.10782567
- [20] E. H. Kim. (2014). *Readiness of university students in Korea for the core competencies in the 21st century*.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21] Y. O. Youn. (2006).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ime*

management and life satisfaction of university students : focusing on the students at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Master's thesis.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Seoul.

- [22] C. H. Seo. (1997). *A study on the relation between time management strategies and life satisfaction of elementary school-teachers.* Master's thesis. Dong-A University, Busan.
- [23] O. S. Kim. (2005). Comparative Study on the Time Management between Korean and American College Students. *Korean Family Resource Management Association, 2005(1)*, 87-98.
- [24] H. Y. Chae. (2005). *Workers' types on time management behaviors.*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 [25] K. H. Lee & J. C. Han. (1997). A Questionnaire for Validity of Career Attitude Questionnaire.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al Research, 8*, 219-255.
- [26] S. M. Han. (2006). Development and Effects of Self-Directed Learning Strategy Program for College Students. *Asian Journal of Education, 7(3)*, 1-30.
- [27] I. H. Jo & Y. H. Kim. (2014). An Analysis of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Undergraduate Students' Learning Motivations, Cognitive Strategies, and Academic Achievements. *Journal of Educational Studies, 45(2)*, 77-98.
DOI : 10.15854/jes.2014.06.45.2.77
- [28] H. Y. Kim, S. Y. Kim, H. W. Seo & E. H. So. (2011). Time Management Behavior and Self-Efficac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17(3)*, 293-300.
- [29] I. J. Seo & K. J. Doo. (2007). The Effect of Time Management Behaviors on the Satisfaction of Time Management for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5(6)*, 21-131.
- [30] C. K. Yoon & H. N. Lee. (2003). A Study on the Job Stress of Nurses in Hospital.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Health Statistics, 28(2)*, 95-109.
- [31] S. J. Han. (2013b). The Influence of Academic Self-Efficacy and Major Satisfaction on Career Attitude Maturity in Nursing Students. *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 25(5)*, 559-566.
DOI : 10.7475/kjan.2013.25.5.559

박 주 영(Park, Ju Young)

[정회원]



- 2011년 2월 : 연세대학교 간호대학(간호학 박사)
- 2011년 3월 ~ 현재 : 건양대학교 간호대학 부교수
- 관심분야 : 간호교육, 재난간호
- E-Mail : jypark@konyang.ac.kr

김 두 리(Kim, Doo Ree)

[정회원]



- 2007년 3월 : 연세대학교 간호대학(간호학 학사)
- 2011년 8월 : 연세대학교 간호대학(간호학 석사)
- 2016년 8월 : 연세대학교 간호대학(간호학 박사)
- 관심분야 : 간호교육, 노인간호, 치매
- E-Mail : kdr2015@konyang.ac.kr

임 효 남(Lim, Hyo Nam)

[정회원]



- 2001년 2월 : 건양대학교 간호대학(간호학 학사)
- 2005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간호대학(간호학 석사)
- 2017년 2월 : 연세대학교 간호대학(간호학 박사)
- 2015년 3월 ~ 현재 : 건양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암환자, 노인간호, 전문간호사
- E-Mail : hnlm@konyang.ac.kr